《콘텐츠소개서》

[제목 : 베틀은 내 운명] - 제작 중

1. 기획의도

자연에서 식물의 섬유나 동물의 털을 이용해 실을 잣고, 옷감을 짜고,
의복을 만들어 입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행위이다.
씨실과 날실이 교차되는 이 단순해 보이는 직조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의복은 몸의 확장과 함께 인간의 생존과 진화에 커다란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직물을 짜는 다양한 형태의 직기들과 그 기술은 5000년을 넘는 동안
지구촌 곳곳에 원형에 가깝게 살아남아있다.
이 다큐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직조 행위에 대한 폭넓고, 깊은 고찰을 통해
인류 문화유산의 지평을 좀 더 넓혀 보고자 한다.
또한, 빠르고, 편리한 최첨단 스마트 직조 제조기술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느리고, 고통스러운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직녀들.
그녀들이 씨실과 날실로 엮어낸 한 장의 천은 단순한 직조물이 아니다.
직녀 자신의 삶이자 희로애락이고, 그녀들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다.
페루, 인도, 한국 3개국 직녀들을 통해 사라져가는 오래된 것의 가치를
조명하고 고통스러운 숙명에 맞서는 여인들의 분투를 다룬다.

2. 등장인물

<제1편> 삼베

한국 안동 삼베마을의 안동포 장인 서순화(83)

3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시집온 첫 해에 만들어주었다는
나무베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서순화 할머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마 줄기에 된장을 먹여 삼베 실을 만드는 장인이다. 후계자를 키우고 싶은데
자식들도 다 마다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늙은 엄마가 삼베 때문에
고생한다며 대마 밭까지 없애 버리겠다는 아들,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자 할머니는 겁이 버럭 난다. 된장으로 아홉 번을
말려야 비로소 쓰임새가 생기는 삼베 실은 이대로 명맥이 끊어지고 말 것인가!

<제2편> 운명을 개척하다

대를 이어 실크 사리를 직조하는 인도 아삼지역 보도부족의 소녀 사라(16)

처음 사라가 실크 자리 직조법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몹시 꾸짖었다.
흰두교도인 보도족은 인도 아삼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직조술을 가지고 있지만
평생을 천대받으며 일해 왔기 때문이다. 자신이 해온 일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엄마지만 사라의 생각은 달랐다.

실크 사리를 만드는 일도 최고가 되면 돈을 벌고, 명예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부족의 최고 장인에게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한 그녀.
하지만 호랑이처럼 무서운 선생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3편> 축제의 날

잉카축제의 도시 페루 친체로에서
콘치니야(연지벌레)로 양털을 염색해 직조하는 빠까(55)

양의 털을 깎고, 연지벌레를 꾹 눌러 붉은 색 염료를 만드는 빠까는
하루 종일 쉴 새가 없다. 남편도 없이 홀로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식들의 학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생 학교라는 곳은 다녀본 적도 없고, 글도 읽지 못하는 그녀지만
자식들만큼은 많이 공부해서 더 넓은 세상과 만나기를 바란다.
잉카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그녀가 만든 옷감으로 만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그녀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집으로 온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사는 이유라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청혼을 해온다...

***** 페루의 직조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촬영 가능. 이 경우 4편짜리 시리즈로 구성.**

[제목 : 나홀로 외갓집에] - 제작 완료

1. 기획의도

"우리 엄마가 나고 자란 곳은 낯선 타국"
막 사춘기가 시작된 다문화 소녀가 엄마의 나라에서
나 홀로 외갓집 식구들과 1주일을 지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본 다큐멘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갓집 살이'를 하게 된
열두 살 소녀의 성장기록이자 가족 관계 회복 프로젝트.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열린 이해의 창이다.

2. 등장인물

▶ 한국 :

황시아 (12) /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웹툰을 좋아하고 아이돌에 푹 빠져 있는 다문화가정 소녀.
자신감이 없고, 걸핏하면 눈물보가 터진다.

모은 피나 (34) / 엄마
캄보디아 캄퐁참 출신, 한국 생활 13년, 리조트 룸메이드

황순섭 (44) / 아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회사원

황도윤 (9) / 남동생
장난꾸러기, 태권도를 잘 함

▶캄보디아 캄퐁참(엄마의 고향)

외할아버지(59)/ 농부, 외할머니(57)/ 주부, 외증조할머니(80)

시아 엄마는 13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홀로 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엄마 모은 피나는
특유의 씩씩함과 당당함,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했다.
그런 그녀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난제가 생겼다. 바로 사춘기에 접어든 딸
시아 때문이다. 원래 성격도 소심한 데다 자기 의사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딸이 답답하기만 하다. 시아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엄마와 말 섞기도 쉽지 않

다는데. 뿐만 아니라 엄마의 나라 캄보디아에 전혀 관심이 없을뿐더러 외갓집과는 거의 교류가 없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낯설어하기까지….
엄마는 딸 시아가 자신이 나고 자란 캄보디아 나라를 경험하고, 시아 스스로 캄보디아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무엇보다 외가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 '나홀로 외가집에' 출연을 결심한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시아는 외갓집을 물어물어 찾아간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애를 먹는지만 엄마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마을 사람을 만나 외갓집에 무사도착 한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시아의 얼굴과 손을 매만지며 엄마를 떠올리며 뭐든지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 하지만 시아와 어른들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시아는 휴대폰 번역어플로 소통을 시도한다.
엄마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는 외할아버지는 시아 엄마가 쓰던 방, 타고 놀았던 그네, 모교, 잡초를 뽑던 너른 밭을 보여주며 아직은 무뚝뚝한 손녀와 좀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인정 많고 눈물도 많은 외할머니는 맛있는 요리로 손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시아도 어른들의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한국에서와는 다른 환경이 불편하고 무엇보다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쓸 수 없어 심심함을 달랠 길이 없다.
이때 시아의 뇌리를 스치는 '알라딘카드'. 알라딘카드는 엄마가 제작진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으로 외갓집에 있는 동안 단 한번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찬스카드'다. 평소 웹툰과 아이돌에게 푹 빠져 있던 시아의 소원은 캄보디아의 유명 아이돌을 만나는 것. 시아의 소원은 마법처럼 이루어진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핫하다는 아이돌 미나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엄마가 화교출신인 미나는 자신도 다문화 가정 출신인 시아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했다고 한다. 시아는 미나의 말에서 용기를 얻는다.
미나를 만나고 돌아온 시아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집에서는 손가락도 까딱 안하던 시아가 직접 물을 끓여 두 분이 좋아하시는 믹스커피를 정성껏 대접한 것이다.
며칠 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따라 나선 시아의 눈 앞에 캄보디아의 자랑인 앙코르와트가 펼쳐지는데..

3. 촬영장소 : 캄보디아
(본 시리즈는 아이템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촬영 가능)

《Company Introduction》

Name	CHAEJUNG PARK	Gender	female
Company	AITHER	Age	49
Work	(Department) CEO (Position/Profession type) Executive Producer	Contact	(Work) +82-70-4246-4257 (Mobile) +82-10-3281-4256 (Email) whadu4u@naver.com
Company Address	1501, Bitmaru, 60, Taegeok-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Experiences	Period	Company name	Title
	May 2011- February 2020	AETHER	- KBS <Window of North and South Korea> - KBS <Documentary Sympathy> “20-year-old Ha Young's Special challenges" etc. - MBC <MBC Special> “Shell We Dance?"
	April 2004 - February 2020	Korean TV Writers Association	Worked with terrestrial broadcasters such as KBS,MBC,EBS ect. Write and direct about 300 films
	June 2018 - February 2020	Korea Independent Production Association (KIPA)	Win-Win Partnership Activities

Major Works	Title (Format)	Genre	Production Year	Contents
	You're my Destiny	Documentary	January 2020 - April 2021	It's 3episode of women weaving in Peru, India and Korea. It illuminates the value of old fading things. It deals with women's struggles against painful fate.

Awards	- <You're my Destiny> : Selected as a support work for global documentary material development for 2019 (KCA) - <Partizan, the age of wolves> : Selected for materials development support work of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CCA) - <Mother's War of Independence> : 2019 Presidential Committee <National Participation Project> Content Certification - AITHER : 2019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Content Introduction》

Content Name	You're my Destiny - The Story of Weaving women	**Genre**	DOCUMENTREY (Culture & Human)
Runtime/episode	50min x 3episode	**Taget age group**	ALL
Production budget	153,650 EUR x 3episode	**Theme and title**	Weaving women
Intention of the content production	Do you know the oldest survival skills of human civilization?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here are three amazing traditional weaving tips from three weaving women. Weaving women against fate! And this is the struggle of their beautiful and tearful life.		
Synopsis	Unique weaving traditions and lives of women weaving in three countries. We would like to show the value of disappearing traditional weaving. We are filming the struggles of three weaving women against their limitations and destiny. Part 1. Sambe -Mrs. Seo(83), who weaving with Sambe (Korea) Part 2. Overcome destiny -Apprentice Sarah(16), who making Silk saree (India) Part 3. Festival day -Mrs. Paru(55) who makes Inca festival clothes from fleece and smokeworms (Peru)		
Your contents' unique point & content oversea pertinent	It's 3episode of women weaving in Peru, India and Korea. It illuminates the value of old fading things and deals with women's struggles against painful fate. - Colorful and exotic cool screen - Inspirational human story of women trying to overcome fate		
Still cut			

***** 페루의 직조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촬영 가능. 이 경우 4편짜리 시리즈로 구성.**

Content Name	Mom's home Alone	Genre	DOCUMENTREY (Culture & Human)
Runtime/episode	30min x 2episode	Taget age group	ALL
Production budget	38,465 EUR x 2episode	Theme and title	Where is my mom's hometown?
Intention of the content production	"My mom was born and raised in a foreign country" What if a girl who had just started puberty spent her week in Cambodia, her mom's country? This documentary is a 12-year-old girl's growth record and family relationship recovery project. And a window of open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Synopsis	Sia's mom is a married immigrant who came to Korea from Cambodia 13 years ago. At a young age, she had a hard time coming to an unfamiliar land, but adapted to the Korean society with her dignity and positive personality. Recently she had the biggest challenge of her lifetime. It is because of her daughter, Sia, who has entered puberty. Pina is frustrated with Sia, who is timid and poorly expressive. Eventually, Sia goes to Cambodia alone, following her mom's wish. What is going on in her mom's hometown?		
Your contents' unique point & content oversea pertinent	-A delightful growth record for a timid teen girl -Overcoming prejudice against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Still cut			

*** 본 시리즈 다큐멘터리는 아이템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촬영 가능